예수님의 떫은 감 먹기 작전

(마태복음 9:27~38)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32.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4.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떫은 감 먹기 작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의 떫은 감 먹기 작전'
한 성도님께서 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이 떫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잘 익어서 아주 달고 맛있게 되었습니다. 떫은 감을 먹으면 입을 헹궈도 떫은 기운이 사라지지 않는 느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편 중동 땅에도 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떫은 감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보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로 공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바로 메시아의 별칭이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세주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모두 구세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시달리고 있는 나라를 독립시켜 다윗 왕국의 시절처럼 번영을 이루게 하리라는 기대였습니다.

한편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처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메시야로 오신 주님과 '나'라는 개인의 연결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근거로 하여 두 시각장애인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실 사역을 자신들의 필요와 연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대답하시는데 이 내용을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믿음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때에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믿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각장애인들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드러났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통해 역점을 두고 강조했던 믿음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믿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엄연히 다르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구분 없이 받아들여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예수님과 두 시각장애인의 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7절을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기대했으며 그것이 또한 메시아의 역할이라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음으로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온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것이냐"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시각장애인은 동의하였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대로 눈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닌 이유는 이어지는 말

씀에서 나타납니다. 30절을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사명이자 은혜 받은 자로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오해가 예수님의 메시아로써의 사역을 방해하고 무효화 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이유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는 등의 육체적 장애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산상수훈을 비롯한 많은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나타난 믿음의 모습들과 비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각장애인들의 믿음은 결코 예수님께서 바라신 합당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작전이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떫은 감 먹기 작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께로 끌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의 마음은 잘 익은 감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메시아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믿음이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마음을 드린 대상에게 머물러서 정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시각장애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상태가 아닌 떫은 감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조차도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떫은 감을 드시듯이 이들의 마음을 수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대화에는 이렇게 떫은맛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마음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있었지만 이들 또한 예수님이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임금이 되시리라 여기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은 높은 직분에 오르게 되리라는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으되 이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각색되어진 떫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떫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떫은 마음을 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배신감을 느끼고 저주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다 못해서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들의 마음을 하늘 보좌 우편까지 끌어올리셨습

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에 모셨던 것처럼 이들 또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설익어서 떫은 감과 같은 믿음을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작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써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구원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안식일의 회복이었습니다. 구원이란 곧 창조 후 첫 번째 안식일에 아담이 순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마음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마음이 순백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고 또한 그 만남이 지속되는 상태가 곧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삶에서 느끼는 필요를 따라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까지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다 끊어내서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본격적인 복음의 사건은 시작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떫은 감 같은 마음들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로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백설 공주와 같은 순백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순백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죄악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죄에서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관계하는 순백의 상태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로 마음을 보낸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온갖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은 마음이 지속적으로 십자가 너머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시각장애인과 귀신들려 말 못하게 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상징입니다. 예수님께 잘 익은 감을 드려 구원이 임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는 구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원을 사용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서 십자가 너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는 하늘입니다. 순백의 마

음을 하늘로 보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는 끝이 납니다.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성취와 목적과 몫에 대한 모든 고민이 끝이 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설령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은 큰일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고 대단할 수는 없습니다.
돈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세상의 일들이 문제로 여겨지는 상태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느껴질 때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하늘까지 가도록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가 보이고, 이러한 일들에 왜 감사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보입니다. 또한 문제를 대할 때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순백의 마음이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날 때에 구원이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또한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35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36절에 나타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지쳐 살아가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만 있다면 삶은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이루고 나면 대통령이나 재벌조차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월급이나 은행에 넣어둔 돈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생계의 근거나 방편으로도 삼지 않게 됩니다. 계좌에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반대로 10억의 돈이 있어도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삶에 고생과 기진함은 사라집니다.
이사야서 40장 30~31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구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이 땅의 삶에서 발생하는 필요와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시기 위한 “떫은 감 먹기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믿음을 깨닫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사역에서 드러난 믿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떫은 감과 같은 믿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구원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잘 익은 감과 같은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너머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 기필코 순백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암에 걸린 것이 문제라면 몸은 치료를 받으시되 다만 마음까지 암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순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태초의 안식일로 돌아가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암에 걸린 상황에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의 매력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공관복음서들을 살펴보며 치유의 기적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마다 예수님의 “떫은 감 먹기 작전”을 기억하시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두 살 외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잘 익은 감 같은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서 기필코 십자가 너머 하늘 보좌 우편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순백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